지상백고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환경과 우린 不二…온 생명을 내 몸 같이 여겨라”

12면에 이어

녹색사찰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빈그릇운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불자님들과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고 실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전하는 불교환경연대의 역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교환경연대의 ‘고난의 행군’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교환경연대는 최근 회원배가운동을 진행했다. 법만 스님 역시 90명의 출재가 도반을 회원으로 초대했다.

“지난 1월에 전국 활동가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모시고 회원 확대에 대한 사례발표를 들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생명의봄 피어라-초록릴레이’로 명칭을 정하고 4월 13일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54일간 회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회원 1300여 명에 더해 이번에 신규회원 700여 명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아마 불교계 NGO에서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2000명이 넘는 단체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불교환경연대 활동과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에 대해 호응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확대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불교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苦)의 길이다. 법만 스님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산과 사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회원 확대를 하게 된 것이고요. 회원의 회비를 늘리고 함께 활동할 사람을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종단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롯이 사찰과 불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보조금이 끊기면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의 임원이나 소수의 거액 후원자에 의존하는 것도 건강한 시민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회원 확대를 꾸준히 하면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환경연대 회원이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만 스님이 환경운동 활동 대중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등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3~5일 열린 불교환경연대 전국활동가 워크숍에서 참가 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 기후위기시대 포교 방안”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운동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최선의 포교’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緣起)와 중도(中道), 생명존중과 자비 실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경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 전체의 생존이 달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커다란 죄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구는 현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와 풍요로움으로 강과 바다, 하늘과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후 1.2℃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훼손되어 인류에 의한 모든 생물의 대멸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전 인류, 전 생명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굳게 믿으며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성공과 행복의 척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생명관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를 이루도록 개인과 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환경은 ‘依報’, 주체인 나는 ‘正報’
“‘依正不二’ 가르침 깊이 되새겨야”
기후위기, 소외계층에게 더 치명적
불자들 ‘不請之友’ 돼 이웃 살피야
소욕지족의 삶 전환해야 위기 극복

그러면서 법만 스님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의여야 할 네 가지 상(四相)인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나와 남을, 인간과 비인간을, 생명과 무생명을,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을 버릴 때 부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기후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살펴야 할 의무가 불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교에는 불청지우(不請之友)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하지 않은 벗, 누가 부르지 않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 재가불자 중에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고통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청지우가 되어 이웃을 살피고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만 스님은 ‘의정불이(依正不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환경인 의보(依報)와 주체인 내가 정보(正報)로서, 서로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모든 존재나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우리는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자연으로부터 심각한 재난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노(怒)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그리고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정불이(依正不二)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환경문제를 곧 내 문제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경 스님이 제안했던 ‘공양송’을 전했다. “연기법의 가르침과 생태학의 지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이 밥은/숨 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몸 온 마음으로/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살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자연도 살고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고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한 자리이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이자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불교환경연대 구호입니다. 생태위기와 빈부격차 등 다중의 위기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만 스님은 인터뷰 내내 차분했다. 오랜 기도와 수행에서 나오는 불교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명확했다. 출가 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준 성과 그대로, 앞으로도 만들어 갈 법만 스님의 ‘그림’들이 기대된다.

유철주 / 작가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